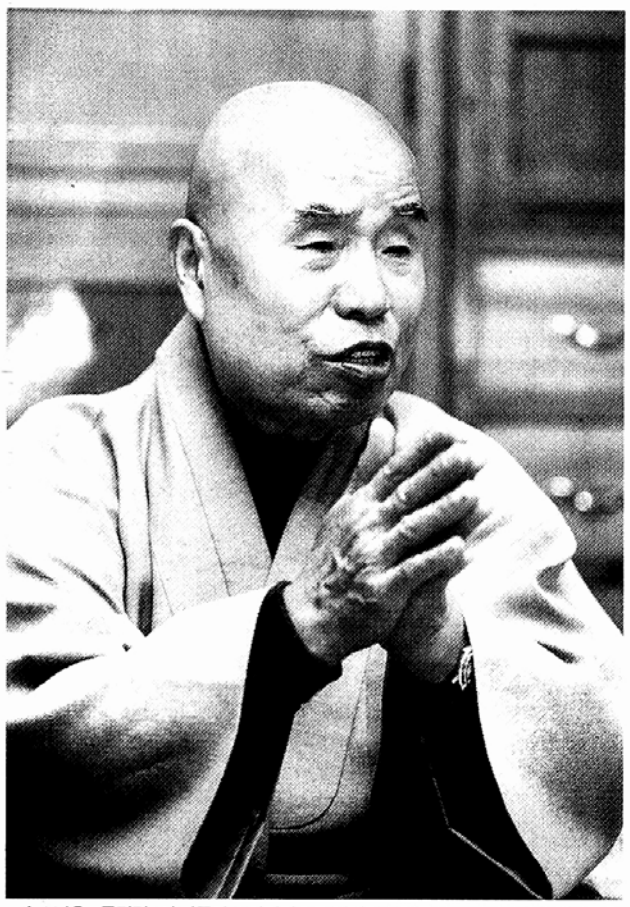
불자라면 반드시 5계 지켜야

치솟게 하신 육조 혜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금강경 莊嚴淨土分(장엄정토분)에 나오는 구절을 설하셨다.

"應無所住(응무소주) 而生其心(이생기심)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을 굳이 말로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스님은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채택된 선객들의 교과서라며 수행인들은 먼저 금강경을 공부하고 통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한 마음입니다."

스님은 이어 '有一物於此(유일물어차)하니 一物(일물)이 何物(하물)하고, 凡有事物(범유사물)이 小不能大(소불능대)하고, 大不能小(대불능소)로대 此則反是(차즉반시)하야 能小而細入隣虛(능소이세입인허)하고 能大而廣包法界(능대이광포법계)라' 는 함허스님(1376~1433)께서 설의(說誼)하신 <금강경오가해> 내용을 일일이 글자를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물(일물) 즉 한 물건은 다름 아닌 마음경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온갖 사물은 작은 것이 능히 클 수 없고, 큰 것은 능히 작아질 수 없지만 마음은 사물과 다르게 능히 작고 미세하여 해가 떠오르면 먼지 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보이는 먼지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커서 법계를 널리 에워싸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천겁을 지나도 옛이 아니고 만세에 뻗쳐있어도 항상 지금 이 마음자리요, 우리들 누구에게나 있는 항하사 같은 커다란 마음자리를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크게 웃을 수 있다면 아마도 불법의 이치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 금강경은 교학에서만 가치가 있는 경전이 아니다. 오조 홍인(弘忍, 602~675) 스님 이후부터 선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채택된 선객(禪客)들의 교과서다. 수행인들이 무릇 먼저 공부해서 통달해야 할 근본 경전인 것이다.

스님은 껍데기로만 불교를 믿었지 자기 마음을 닦지 않는 사부대중들에게 크나큰 경책을 하셨다. 껍데기 불교를 믿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불자라면 마땅히 5계를 지키고 부부가 함께 신행하는 생활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금강경 공부로 근본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쭸다. 스님은 가차 없이 "계를 철저히 수지해야한다"고 말씀하신다.

"계를 철저히 지켜야 수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은 잡념과 망상, 게으름을 건지는 지렛대입니다. 계를 수지하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계율은 수행의 결정체예요. 불법은 계율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계율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건물이 무너지고 맙니다. 불법은 반드시 계율이라는 그릇에 담겨야만 하는 것이지요. 설사 깨침이 깊어서 걸림이 없다 할지라도 함부로 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계율을 알고는 있지만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잊고 사는데, 이것이 계율과 현실의 괴리 때문 아니냐고 여쭈자 스님은 "승가에서도 계율을 현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불법의 근본 근본인 계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부분이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언젠가 해인사 경내를 거닐고 있는데 수각 앞에 있던 양복쟁이가 '스님은 살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런데 묻는 자체가 하도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그 양복쟁이는 목사였어요. 스님네들의 수행과정을 떠보느라고 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살생 안 한다' 고 하더냐 하고 대답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살생 안 한다' 고 했으면 할말이 많았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물 한 바가지에도 8만 4천 충이 있다고 하니까요. 계라는 것은 원리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는 수행정진의 밀도와 강도를 높임으로서 자연스레 체화됩니다.

억지로 참고 부정하면 그만큼의 반작용이 있어서 무척 고통스럽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몸뚱이만 벗어버리면 되지만 여자에게 물리면 세세생생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님은 계를 지켜 선정을 닦고, 성불에 이르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임을 설명하셨다. 그럼 도대체 성불이란 어떤 것일까.

"성불이란 땅속에 묻혀있는 나의 본성을 드러내어 그것이 나의 본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화두 참선을 해야 성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선하기 전에 먼저 모든 번뇌망상의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번뇌망상이 무엇이냐 하면 밀림에서 큰 나무를 베어서 가지고 내려오려면 가지를 모두 쳐야 하지요. 집착이 곧 가지입니다. 집착의 가지를 쳐 버려야 나무가 주루루 내려가지요. 집착을 끊고 화두가 일념이 되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두로 깨달음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직접 물을 먹어봐야 차갑고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아무리 차갑다고 설명해도 알지 못해요."

노스님께서 시자 한명 두지 않고 해인사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갑자기 궁금했다.

"나는 본래 오대산 문중인데, 해인사에만 있으면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찾아오다 보니 60이 다됐는데 대중들이 주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주지냐고' 뿌리쳤는데 큰스님의 명이라 한 2년 반 정도 주지소임을 살았지요. 은사 지월스님도 이곳에서 열반하셨고 해서,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스님은 오후에 세간에 나가봐야겠다고 하셨다. 자동차가 없어 한동안 신세진 불자가족에게 가정법문을 들려주고 싶다 하시며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총총히 절 아래로 내려가셨다. 스님의 발목에는 요즘 들어 보기 힘든 행전이 쳐져 있었다. 서적에 의하면 한암 스님도 행전을 항상 하셨다고 한다. 아마도 도견스님은 큰 스님들의 법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행전을 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부가 함께 신행하는 생활속 불교 바람직

해인사에만 있으면 알수없는 편안함이…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기후스님



(전호에 이어)

6년 동안을 묵언수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님을 만나고 돌아온 나는 6년묵언은 못하더라도 6일만이라도 침묵해 보고자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았다. 그 6일 동안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던지 꿈속에서 말을 해버리고 말았으니, 6년묵언 수행정진에서 나올 그 적정의 깊이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스님이 묵언을 풀고 태백산 기슭에 은거하고 있을 때, 스님을 찾아간 내게 묵언 기간에 필담으로 심중을 표현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고 했다. 스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리고자 했다. 십악중죄(十惡重罪) 가운데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다. 몸과 뜻으로 짓는 죄악이 각 세가지이지만 입으로 짓는 죄는 네가지나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입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사람은 나면서 입에 도끼를 물고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라는 말이 있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자주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릴 기회가 많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어지는 법이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니 말이 많으면 그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선원의 많은 스님들이 묵언패(默言牌)를 목에 걸고 침묵속에서 수행하는 것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다.

내가 런던에서 살 때 스님은 시드니에서 살았다. 런던과 시드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다. 우리는 잠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스님은 나의 수행을 지켜보며, 해가 바뀔 때면 언제나 먹을 갈아 붓으로 자신의 수행 경계를 간단히 적어보내곤 했다. 이러한 일이 그가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진정한 도반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이다. 얼마 전 나는 런던에서, 그는 시드니에서 일시 귀국했을 때 참으로 모처럼 도반들과 한 자리에 앉았다. 모처럼 만난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대화의 주제는 정(定)과 혜(慧)가 하나인가, 둘인가 하는 문제였다.

"정(定)없이 혜(慧)를 이룰 수 없으니 정과 혜는 하나이다" "정으로 인하여 혜를 이룬다고 하지만 정에 머물러 있는 한 정은 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과 혜는 하나가 아니다"

토론은 계속되었으나, 기후스님은 짧게 한마디 할 뿐이었다.

"정과 혜가 하나인가, 둘인가 하는 것은 지금의 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정을 습득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경험에서 우러난 그의 그 말 한마디는 토론을 종식시키는 힘을 가졌다. 토론에 열을 올리던 우리는 재주를 부리는 앵무새 같았고, 짧게 핵심을 찌른 그는 천고에 자취를 감추는 학 같았다.

일년 전 그는 강원 제자이자 6년묵언 정진 도반이며 영명사를 창건한 주광스님을 잃었다. 그래서 시드니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해 영명사에 주석하며 운영을 해야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스님은 영국에 있던 나를 불렀다. "나는 사찰 운영에는 능력이 없소. 내가 보기에 영명사는 대사가 아니면 다시 일으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대사가 좀 도와주시오. 나는 다시 산으로 가야할 것 같소."

그리고는 태백산으로 가 버렸다. 주지소임을 서로 맡으려 하는 이 시대 풍토에 기후스님처럼 절을 버리고 도망가는 수행자는 많지 않을 듯 싶다. 삼십여년 전 중강의 소임을 이어받았듯 이번에도 그의 청을 저버리지 못하고 나는 영명사에 엉거주춤 주저앉고 말았다.

매사 엄격히 자신다스려 영명사 맡기고 수행길로

"못 생긴 나무가 산 지키고 못생긴 중이 절 지킨다고, 나는 절에서 나이만 먹은 사람이오. 짐을 떠넘기게 되어 미안하오"

영명사를 내게 맡기며 그가 한 말의 전부다. 온 천하를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겸손으로 표현하는 스님은 정말 수행만을 위해 살고있는 출격장부답다는 생각이 든다. 곧게 자란 나무는 목수의 손을 피할 수 없다. 끊기어 재목으로 사용되게 마련이다. 굽고 옹이가 많은 나무는 아무 곳에도 쓸모는 없지만 오래 견딜 수 있다. 그러니 그런 나무가 오히려 아름답게 산을 지킨다. 기후스님은 바로 그런 나무 같은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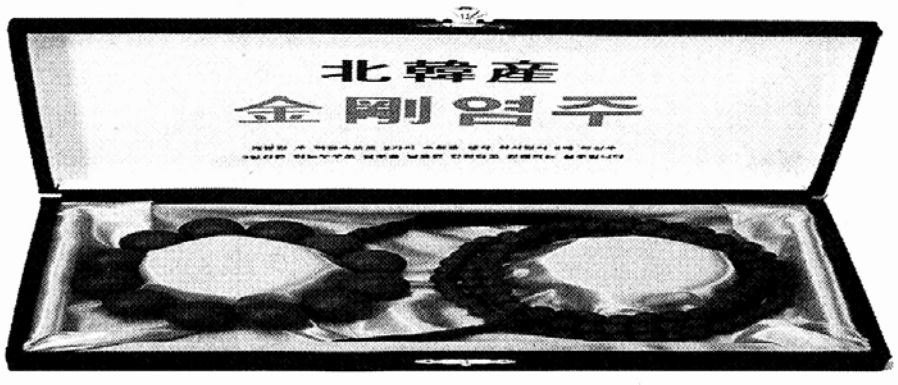
도반 같은 제자를 잃은 터라 며칠을 같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 산책길에 홀로 선 그의 뒷모습에서 침묵으로 관조하는 수행자의 외로움을 느꼈다.

"어이 대사! 우리 조금만 더 살다가 인도로 떠나세. 가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적한 길가에서 쓰러져 죽게 되면 누구인지 알 리도 없을 테고, 남의 신세도 적게 질 터이니 말일세."

"요즈음 한국 수행자들은 죽고 나서도 신도들 돈을 거두니, 업장만 두텁게 할 뿐 부끄러운 일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일세. 어쩌면 좋겠나?"

스님다운 이야기다. 나에게도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인다. ▩ 구미 영명사 주지

北韓의 세계적 신비의 명산품
北韓 金剛염주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친다는 靈驗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靈驗

金剛염주의 신비

北韓의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으로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평안남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신비한 영험으로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염주중에 최고의 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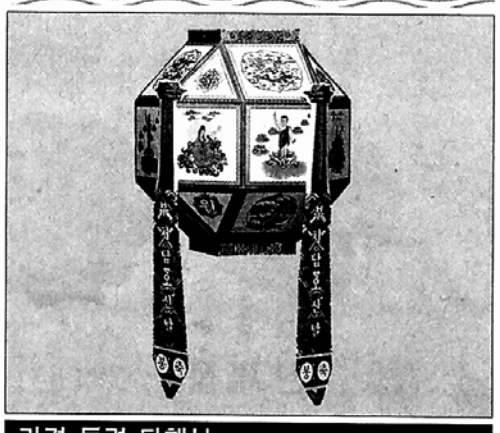
金剛염주는 상온(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 유일의 염주입니다.

신청문의 전화 (02)704 -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원을 아래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농협 1127-02-175765

국내독점보급
金剛닥터KOREA
서울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B/D 406호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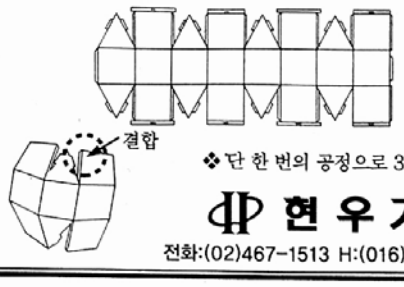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업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